



'뿌리들의 일어섬'

이이남 미디어아트 英 테이트 모던서 만나다

런던 템즈강변에 자리한 테이트 모던 미술관은 '현대 미술의 최전선'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미술관 중 하나다. 지난해 테이트 모던에는 모두 590만명이 다녀가며 영국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을 기록했다.

광주의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자신의 대표작 13편을 엮은 60분 분량의 영상 작품 '뿌리들의 일어섬'을 테이트 모던에서 전시한다. 이 작가는 오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리는 2019 런던 동아시아영화제(London East Asia Film Festival)에 공식 초청돼 작품을 선보인다.

2015년 창립된 런던 영화제는 현재 영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동아시아영화제로 자리잡은 행사로 매년 60여편의 작품을 전시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테이트 모던에서 '필름&아트' 섹션을 진행하는 등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필름&아트'전에는 이 작가를 비롯해 장민승 작가 & 정재일 작가가, 일본의 타츠미 오리모토가 초청됐고 이들은 26일 작품 전시 후 테이트 모던 미술관 회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아티스트 토크도 진행한다.

작품은 240석 규모의 스타시네마(Star Cinema)에서 만날 수 있다. 전시장에서 차분히 보기 힘들었던 미디어

'2019 런던 동아시아영화제' 초청 대표작 13편 엮은 '뿌리들의 일어섬' 신작 '다시 태어나는 빛' 등 전시 26일 미술관에서 아티스트 토크도

아트를 대형 스크린과 뛰어난 음향이 어우러진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관람할 수 있는 드문 기회다. 영화제측은 이 작가를 '제 2의 백남준'으로 칭하며 런던 사치갤러리 전시 등도 소개하고 있다.

'뿌리들의 일어섬'은 1997년부터 미디어 아트 작업을 시작한 이 작가가 자신의 대표작을 편집한 영상으로 작품 세계의 뿌리가 되는 미디어 아트와 신작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 작가는 '빛'을 매개로 작가 자신의 삶에서 시작해 인류사와 문명으로 이야기를 확장하며 뿌리와 진리에 대해 조명한다.

신작 '다시 태어나는 빛'은 광주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순간적인 빛의 에너지가 어둠을 밝히는 순간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인류사의 경계와 갈등, 전쟁에 대한 이미지

가 트라우마의 감각처럼 스쳐지나간다. 이어 시각과 청각이 어우러진 일렉트로닉 비주얼을 통해 경계가 통합되고 생명으로 탄생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 뉴욕 UN본부에 전시된 '김홍도-목죽도'와 동양의 고전회화에 인류사를 담은 '만화병풍' 등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작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담양과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광주에서 창작했던 작품 등 제 작업의 변천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미디어 아트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빛'은 어둠과 절망을 뚫고 다시 희망의 빛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담았고 '목죽도'는 어릴 적 담양의 겨울날 만났던, 흰눈이 쌓인 동화적 장면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작가는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개인의 구축물 전시와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회담장에서 전시를 진행했으며 영국, 파리,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등 국내의 주요 미술관, 비엔날레에서 전시했다. 오는 11월에는 룩셈부르크에서 신작전을 개최하며 광주 은암미술관에서 광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선정 5주년 기념 초대전을 갖는다. 또 올해 문을 여는 제주 아주미술관 개관전에 초대됐으며 내년에는 체코, 이탈리아, 베를린 전시와 함께 서울 사비나미술관 초대전도 계획돼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화분

사과·굴·화분...익숙한 듯 '낮선 풍경'

송지윤 초대전, 10~24일 소암미술관

서양화가 송지윤 작가 초대전이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광주시 남구 서동 소암미술관에서 열린다.

소암미술관(관장 양동호)은 지역 내 시각예술 발전과 청년 작가 지원을 위해 매년 창년 작가 초대전을 열고 있다. '낮선 풍경(Natural Object Series)'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사과, 굴, 화분 등의 소재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20여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작들은 송 작가 특유의 대조적인 색채와 화면 분할, 회화적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구름다리 위에서'의 추억'은 다면적 풍경을 한 화면에 모두 담아낸 독특한 면 분할과 과감한 색채의

결합이 어우러져 개성있는 풍광을 만들어내며 '낮선 풍경-오렌지'는 그물망 안에 들어있는 주홍빛 오렌지의 다채로운 색감을 통해 신선함을 전한다.

송 작가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거쳐 현재 동대학 박사 과정에서 수학중이며 조선대 미대에 출강하고 있다. 또 갤러리 리체 전시 기획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동회, 월출미술회, 중작파 회원으로도 활동중이다.

지금까지 '기억과 전상의 흔적' 등을 주제로 4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전 '다이브인투유(DIVE INTO YOU)'전 등 많은 그룹전에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1~13일 여수 '예술마루 실내악 페스티벌'

Schubert 와 함께하는 클래식 축제

GS칼텍스 예술마루(이하 예술마루)가 '2019 예술마루 실내악 페스티벌'을 11~13일 3일에 걸쳐 여수 예술마루 대극장에서 진행한다. 11일 오후 7시 30분, 12일 오후 2시·오후 7시, 13일 오후 2시.

이번 축제는 1년에 한 번 가을시즌에 예술마루 일대에서 펼쳐지는 클래식 축제다.

올해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곡가이자 가곡왕으로 알려진 슈베르트를 집중 조명하는 'All 슈베르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 축제에서는 슈베르트의 '마왕', '네 손을 위한 피아노 판타지'와 함께 '보리수', '들장미', '음악에 붙임', '송어' 등 가곡을 무대에 올린다. 또 고악기 아르페지오네를 위해 작곡된 작품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를 비올라 연주로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며, '현악 4중주 14번 죽음과 소녀', 변주곡 '피아노 5중주 송어'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첼리스트 양성원(연세대 교수)을 비롯해 비올리스트 김상진(연세대 교수), 소프라노 임선혜 등 국내 연주자와 피아니스트 엔리코 파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 바이올리니스트 나이위안 후, 모달리아니 콰르텟 등 해외 연주자들이 참여한다. 클라리네티스트 채재일(한예종 교수), 호른리스트 김홍박(한양대 교수)도 함께 무대를 꾸민다. 또 다음달 22일에는 양성원, 엠마누엘 스트로세(피아노), 올리비에 샤를리에(바이올린)로 꾸며진 '트리오 오원'의 '10주년 기념 음악회'가 연계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석 3만원. 3일간 4회의 공연을 전부 관람할 수 있는 '매니아 패키지'는 8만원, 2회의 공연이 있는 토요일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토요일 패키지'는 4만원, 한 회차당 4매의 티켓을 제공하는 '패밀리 패키지'는 9만원에 판매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엔리코 파체

양성원

임선혜

진정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배리어 프리 공연 '우산 도둑', 11일 ACC 어린이극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이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공연 '우산 도둑'을 선보인다. 11일 오전 11시, 12~13일 오전 11시·오후 3시 ACC 어린이극장.

'우산도둑' (연출 김예나)은 스리랑카의 동명 그림동화를 원작으로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주제를 담은 작품으로, 지난해 'ACC 참여형 어린이공연 쇼케이스'에서 첫 선을 보였다.

'배리어 프리'는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이다. 이번 공연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연극장면의 일부를 읽어주는 '음성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등 장애인



관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광주 지역 학교와 함께 공연과 연계된 노래, 장면, 소품 등 주제를 활용해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배리어 프리 워크숍 프로그램'도 11일 오후 1시 어린이문화원 창작실습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석 1만원. /유연재 기자 yjyou@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신양파크호텔 12월 송년모임 특별 감사이벤트

한 해를 마감하는 귀하의 소중한 모임, 귀하를 위한 특별 혜택을 준비하였습니다.

12월 송년모임 혜택 (연회행사 시 적용)

- 각 연회장 메뉴 10% 할인
- 음료·주류 50% 할인
- 객실 이용권 증정
- 현수막 1ea 무료제공 } ※50명 이상 행사시 적용
- 빔프로젝트 무료제공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클럽

특별회원 모집 [개인 (월) ₩300,000원] - 회원 특전 -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 10% 할인
- 객실 이용시 50% 할인
- 요가, 에어로빅, 수영 단체레슨 무료

Shin Yang Park Hotel (062)221-4101~3, 228-8000